

## 유아의 도덕적 정서 이해의 발달 : 가해자 의도와 피해자 반응의 영향

The Development of Moral Emotional Understanding in Preschool Children :  
The Influence of Offenders' Intentions and Victims' Reactions

송하나(Ha-Na Song)<sup>1)</sup>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s of age, offenders' intention, victims' emotional reactions on the moral emotional understanding of preschool children. Eighty eight children aged 4, 5, and 6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were interviewed using four moral transgression stories. The responses of the children were then analyzed in terms of the levels of moral emotional understanding, from error through to the understanding of secondary emotio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older children showed higher levels of moral emotional understanding than younger children. Additionally, children's moral emotional understanding was higher in situations in which offenders' behaviors were intentional, and in which the victims expressed sadness. The attribution of moral emotions was influenced by victims' emotional reactions only in 6-year-old children. Discussion of these results also included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 programs for children with aggressive behaviors, as well as a number of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Key Words** : 도덕적 정서(moral emotion), 유아(preschool children), 가해자의 의도(offenders' intention), 피해자의 정서 반응(victims' emotional reactions).

### I. 서 론

최근 타인에게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는 무차

별적 공격 행동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아동의 도덕적 정서 발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덕적 정서란,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sup>1)</sup> 성균관대학교 인재개발·아동 청소년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a-Na Song, Departmen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110-745, Korea  
E-mail : jni4ever@skku.edu

사회적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인해 경험되어지는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Harris, 1989). 특히, 도덕적 정서는 일차 정서인 기쁨, 슬픔 등과 달리 사건의 인과적 이해와 내적 동기의 평가 같은 인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이차 정서이며(Denham, 1998), 대표적으로 죄책감과 수치심이 이에 해당한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구별되는 정서이지만 사회적 위반 상황에서 이 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개인의 귀인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 정서적 경험이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도덕적 정서라는 한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Bear, Uribe-Zarain, Manning, & Shiomi, 2009; Ryu, & Min, 2002).

지금까지 아동의 도덕적 정서를 다룬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특정 연령의 아동들이 도덕적 정서와 그 인과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비도덕적 행위들에 대해 어떤 판단과 정서 반응을 보이는지를 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도덕적 정서가 언제 발달하는지’에 대해 조금씩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차 정서는 4, 5세경에, 도덕적 정서와 같은 이차 정서는 7, 8세 정도가 되어야 발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6세 아동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정확히 판단하거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Olthof, Schouten, Kuiper, Stegge, & Jennekens-Schinkel, 2000) 어린 유아들은 위반 행동의 결과에 따라 가해자의 정서를 이해하는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Nunner-Winkler와 Sodian(1988)에 따르면, 유아들은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가 발각되지 않았을 때, 가해자의 기분이 좋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8세의 아동은 행위의 결과보다 도덕적 기준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국내 연구

들(Choi, & Yu, 2000; Park, 2001)에서도 4, 5세경의 유아들은 가해자가 기쁨을 느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9세 이상의 아동들은 가해자가 슬픔, 두려움, 화남 등 도덕적 정서와 관련된 부정적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유아들 뿐 아니라 8세 아동의 상당수도 결과로 정서를 판단하는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rsenio, & Kramer, 1992).

이처럼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죄책감 같은 도덕적 정서를 경험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들은 도덕적 정서가 7, 8세경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9, 10세가 되어야 내면화된 도덕 규칙에 의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서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뼈아제가 제시한 대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 조망 수용이 더 가능해지는 초기 아동기 이후에 도덕적 정서가 현저히 발달한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은 훨씬 더 어린 연령에서 도덕적 정서 발달 이루어진다고 제시하고 있다. Berti, Carattoni와 Venturini (2000)는 5, 6세 아동 중 일부가 ‘친구를 때렸을 때’ 등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 슬픔과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들 중에서도 해를 입은 피해자가 기쁨을 느낄 것이라고 응답을 한 경우는 없었으며(Kim, 1993), 우울한 성향을 보이는 유아들은 수치심 같은 자기 의식적 정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uby, Belden, Sullivan, Hayen, McCadney, & Spitznagel, 2009). 이 외에 영아들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의도적으로 부모나 교사의 눈을 회피하거나 눈을 가리는 등 슬픔이나 화남과는 구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Barrett, Zahn-Waxler, & Cole, 1993; Kochanska,

DeVet, Goldman, Murray, & Putman, 1994).

위의 결과들은 어린 아동들도 도덕적 정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4, 5세의 경우 일차적 정서의 발달이 아직 진행중인 시기이며, 도덕적 정서를 이해한다는 증거가 단편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6세 미만의 유아 대부분이 이차 정서 이해에 오류를 보이고 있다(Olthof et al., 2000). 따라서 유아기의 도덕적 정서 발달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마도 언어 표현이 제한적인 유아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응답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유아들에게 위반 행동이나 가해 행동을 이야기로 들려주고 이야기 속 가해자나 피해자의 정서를 목록에서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다. 예를 들어, 기쁨, 화남, 두려움 등 일차 정서의 얼굴 표정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피해자의 정서가 어떤지 그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거나, 유아의 응답을 구체적 정서가 아닌 긍정 혹은 부정의 차원으로 분류한 것이 많았다. 그러나 일차 정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유아가 이차 정서인 도덕적 정서를 이해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정서가 어린 연령에서도 발달한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본 연구에서 더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어린 아동일수록 특정 단어를 사용하여 정서를 언급하는 일이 적고 ‘울어’ 등 정서를 행동으로 설명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유아에게는 개방식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모두 녹취하고 그 응답이 이차 정서와 관련되는 것인지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음으로, 어린 아동들은 행위의 의도보다 결

과에 따라 도덕 판단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Nelson, 1980), 이러한 맥락에서 가해자의 의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Menesini와 Camodeca(2008)의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해를 입힌 상황을 제시했을 때 더 죄책감을 많이 느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실수로 해를 입힌 상황에서는 수치심이나 실망 등을 더 많이 느끼는 반면, 의도적으로 해를 가한 상황은 반성, 후회, 벌을 받을까 고민하는 감정 등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erguson, Stegge, & Damhuis, 1991). 학령기 아동뿐 아니라 유아들도 결과에 관계없이 나쁜 의도보다 좋은 의도를 가진 행위를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했지만(Bussey, 1992)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학령기 아동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의 도덕적 정서 이해가 가해자의 의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면밀히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죄책감 같은 정서는 어떤 행동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귀인에서 나타나는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의 고통 정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들은 피해자의 고통이 분명한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더 정확히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Olthof, et al., 2000). Dodge와 Frame (1982)의 사회정보처리모델에 기초한 인지 훈련은 공격적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에게 사회적 위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피해자의 기분이 어떨지, 단계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정서에 대한 이해는 도덕적 정서 발달 증진과 크게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유아기의 정서 발달 증진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정서적 반응에 따라 유아의 도덕적 정서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만 7세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도덕적 정서 이해의 발달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가해자의 의도와 피해자의 정서적 반응에 따라 유아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려 하였다. 가해 행동을 한 뒤 후회 같은 도덕적 정서를 느끼는 것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동시에 친사회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Bear, et al., 2009).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유아의 이차 정서 발달을 바탕으로 공격적 문제 행동의 중재 방안에 활용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가해자에 대한 유아의 도덕적 정서 이해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유아의 도덕적 정서 이해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유아의 도덕적 정서 이해는 가해자의 의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4> 유아의 도덕적 정서 이해는 피해자의 정서적 반응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5> 유아의 도덕적 정서 이해에 대해 연령, 가해자의 의도, 피해자의 반응 간에 상호작용이 존재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88명이었다. 각 연령별로 만 4세 22명(남아 12, 여아 10), 만 5세 33명(남아 18, 여아 15), 만 6세 33명(남아 14, 여

아 19)이었다. 유아들의 평균 연령은 4세가 49.86개월( $SD = 3.96$ ), 5세가 63.97개월( $SD = 4.11$ ), 6세가 75.24개월( $SD = 2.08$ )이었으며 절반 이상이 연소득 5천 만원 이상인 중산층 양부모 가정의 자녀들이었다.

### 2. 연구 도구

#### 1) 가해 행동 이야기 과제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정서와 공격성 분야의 선행 연구들(Arsenio & Ford, 1985; Dodge, & Frame, 1982; Perry, Perry, & Rasmussen, 1986)에서 사용된 이야기들의 내용과 모티브를 참고하여 한 아동이 다른 아동에게 신체적, 물리적 해를 가하는 4가지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규칙 위반이나 거짓말하기 등의 간접적인 가해 상황도 포함하고 있었지만, 어린 아동들은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행위(예 : 때리기)를 가해 행동으로 가장 잘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예비실험에서 유아들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서를 바꾸어 응답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해 대상과 행위가 분명한 외현적 가해 행동만을 고려하였다.

네 가지 이야기는 제시 조건인 가해자의 의도(의도 vs. 실수)와 피해자의 정서 반응(슬픔 vs. 화남)에 따라 구성되었는데 이야기 1과 2는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는 상황, 3과 4는 의도가 아니라 실수로 해를 입히는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야기 1과 3에서는 피해 아동이 울고 슬퍼하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2와 4에서는 화를 내며 가해자에게 항의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야기1) 미나(철이)가 아이스크림을 빼앗으려고 어떤 아이를 때려서 아이가 다침. 다친 아이가 슬프게 운다.

<Table 1> Types of children's responses to the story tasks

Type	Children's responses
Error	Don't Know, No Response, Nice, Happy, Can't Eat Cookie, Sick
Valence of emotion	Feel Bad, Feel Not Good, Cry,
Primary emotion	Sad, Very Sad, Scared, Depressive
Secondary emotion	Feel Sorry, Regret, Wanted to Say 'Sorry', Pitiful

(이야기2) 미나(철이)가 어떤 아이가 싫어서 일부러 돼지라고 놀림. 아이는 미나(철이)에게 화를 낸.  
 (이야기3) 미나(철이)가 실수로 어떤 아이가 재미있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망가뜨림. 장난감이 망가져서 아이가 슬프게 운다.  
 (이야기4) 미나(철이)가 실수로 어떤 아이를 쳤는데 그 아이의 과자가 땅에 떨어짐. 아이가 미나(철수)에게 화를 낸.

각각의 이야기들을 피해자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그 애의 기분이 어떨까?)과 가해자의 도덕적 정서 반응에 대한 질문(지금 미나(철이)의 기분이 어떨까?)을 포함하고 있다. 이야기 속에서는 피해자의 정서 반응 두 가지를 각각 제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상황에 대한 유아의 이해를 점검하기 위해 먼저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유아의 응답을 쉽게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의 예시와 같이 단계적으로 질문을 배치하였다.

실험자 : OO 야, 선생님이 오늘 미나(철이)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미나(철이)는 다른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는걸 보고 그걸 빼앗으려고 했어...  
 그래서 그 애를 때렸는데...그 애가 다쳤어.  
 그 애의 기분은 어떨까?  
 (중략)

실험자 : 그래, OO가 말한 대로 때리고 아이스크림을 빼앗아서 그 애가 슬퍼해. 막 울고 있어. 지금 미나(철이)의 기분은 어떨까?

2) 도덕적 정서 이해의 코딩 준거와 점수화  
 먼저 유아들이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것을 내

용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아의 도덕적 정서 이해 유형을 Table 1과 같이 네 가지(오반응, 정서 속성 반응, 일차 정서 반응, 이차 정서 반응)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빈도를 구하였다. 예를 들어, 유아가 전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예 : 몰라), 정서가 아닌 결과만을 언급하거나 (예 : 과자를 못 먹어), 기분이 좋을 것이라고 답변한 경우는 오반응으로 보았다. 또한 ‘좋다 vs. 나쁘다’ 와 같이 모호하게 속성만을 언급하거나 감정이 아닌 행동만을 언급한 경우에는(예 : 울어) 정서 속성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슬플 것 같아’ 와 같이 일차 정서 단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일차 정서 반응으로, 후회, 뉘우침, 죄책감 같이 직접적으로 도덕적 정서와 관련된 내용(예 : 미안할 것 같아) 언급하였을 때는 이차 정서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본 실험의 연구자가 준거에 따라 정서 반응 분류를 실시하고 이후 훈련받은 대학원생 평정자가 실시한 평정 결과와 비교하였다. 정서 분류에 대한 평정자 훈련은 이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유아 다섯 명의 사례를 가지고 실시되었다. 전체 사례에 대한 두 평정자간 일치도는 96.7%였다.

### 3. 연구 절차와 분석

유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아동발달실험실을 방문하여 먼저 실험자와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등 라포를

형성하였다. 유아와 실험자가 인터뷰를 실시하는 동안 어머니는 유아의 등 뒤에 있는 실험실 구석 책상에 앉아 참여자의 배경 정보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흥미와 주의 집중을 위해 실험자가 손인형을 사용하여 유아들에게 인형극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네 가지 이야기에는 미나와 철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아에게는 미나, 남아에게는 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유아의 성과 일치하는 인형을 사용하였다. 아동이 잘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질문을 반복하거나 보조 질문(예: 때린 애가 우니까 미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을 제시하였다. 실험자는 기록지에 아동의 응답을 기록하였으며 수행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되었다. 이야기 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대략 6~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통계 처리는 도덕적 정서 이해 유형에 대해 연령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고, 빈도를 합산하여 개인점수를 구한 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집단 간 변인인 아동의 연령(A), 집단 내 변인인 가해자의 의도(B)와 피해자의 반응(C)을 독립변인으로 한 삼원 혼합설계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SPSS version 15.0을 사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가해자에 대한 유아의 도덕적 정서 이해 유형과 분포

연구 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유아들이 어떤 수준의 도덕적 정서 이해를 보이는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한 결과가 Table 2에 나타나 있다. 우선, 전체 반응 비율을 살펴보면, 유아들은 가

해자의 정서에 대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와 같은 정서 속성 반응을 가장 많이 보였으며 (49%) ‘슬플 것 같아’등 일차 정서를 언급하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았다(24%).

각 연령별로 살펴보면, 죄책감과 관련된 이차 정서 반응은 6세(17%)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지만, 4세(4%)와 5세(5%) 유아들도 이차 정서 반응을 보였다. 즉, 소수이긴 하지만 4세와 5세 유아들도 가해자의 정서를 이차 정서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 정서 반응은 4세(13%)에 비해 5(28%)와 6세(28%)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오반응은 6세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으나 각 연령마다 상당수의 유아가 아직도 가해 상황에서의 정서 반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Figure 1은 이러한 발달 경향을 한눈에 보여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 속성 반응은 줄어드는 반면, 일차와 이차 정서 반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유형별 반응 비율은 이야기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의도적인 가해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화를 내는 상황인 이야기 2에서 가해자가 도덕적인 이차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답한 유아는 한명 뿐이었다. 또한 피해자가 슬픈 반응을 보이는 이야기 1(11%)과 3(18%)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화를 내는 이야기들보다 이차 정서 반응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2. 연령, 가해자의 의도, 피해자의 반응에 따른 유아의 도덕적 정서 이해의 차이

다음으로 연구 문제 2, 3, 4, 5를 분석하기 위해 오반응을 제외한 유형별로 빈도를 합해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Table 3). 유아의 도덕적 정서 이해 능력이 연령, 가해자의 의도, 피해자의 정서적 반응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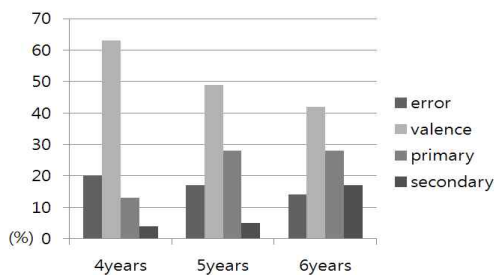
<Table 2> Frequency and percentage of child responses to the story tasks by age

	Type of responses	4 years(n=22)		5 years(n=33)		6 years(n=33)		total (n=88)	
		freq.	(%)	freq.	(%)	freq.	(%)	freq.	(%)
Story1	Error	8	(36)	9	(27)	5	(15)	22	(25)
	Valence	12	(55)	12	(36)	12	(36)	36	(41)
	Primary	1	( 5)	11	(33)	8	(24)	20	(23)
	Secondary	1	( 5)	1	( 3)	8	(24)	10	(11)
Story2	Error	3	(14)	5	(15)	6	(18)	14	(16)
	Valence	15	(68)	17	(52)	16	(48)	48	(55)
	Primary	4	(18)	11	(33)	10	(30)	25	(28)
	Secondary	0	( 0)	0	( 0)	1	( 3)	1	( 1)
Story3	Error	4	(18)	6	(18)	2	( 6)	12	(14)
	Valence	13	(59)	17	(52)	12	(36)	42	(48)
	Primary	3	(14)	6	(18)	9	(27)	18	(20)
	Secondary	2	( 9)	4	(12)	10	(30)	16	(18)
Story4	Error	4	(18)	3	( 9)	5	(15)	12	(14)
	Valence	14	(64)	19	(58)	15	(45)	48	(55)
	Primary	3	(14)	9	(27)	10	(30)	22	(25)
	Secondary	1	( 5)	2	( 6)	3	( 9)	6	( 7)
Total of stories	Error	19	(22)	23	(17)	18	(14)	60	(17)
	Valence	54	(61)	65	(49)	55	(42)	174	(49)
	Primary	11	(13)	37	(28)	37	(28)	85	(24)
	Secondary	4	( 4)	7	( 5)	22	(17)	33	( 9)

검증하기 위해 3(연령) X 2(의도) X 2(반응)의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내 변인인 의도와 반응은 두 수준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처럼 변인의 수준이 둘 뿐인 경우에는 Mauchly's

W가 1로 구형성 가정을 완벽하게 충족한다.

정서 속성, 일차 정서, 이차 정서 반응 각각에 대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차 정서 반응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가 없었으며 정서 속성 반응은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85) = 4.07, p < .05$ ). 피해자가 슬퍼하는 상황보다 화를 내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기분이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Table 4는 이차 정서 반응에 대한 변량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4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이차 정서 반응이 높았으며( $F(2, 85) = 3.98, p < .05$ ), 가해자가 실수로 해를 입히고( $F(1, 85) = 5.41, p < .05$ ), 피해자가 슬픈 반응



<Figure 1> Percentage of types of moral emotion understanding

&lt;Table 3&gt;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 emotions by age, offenders' intention, and victims' reaction

		Intended				Not intended			
		Sadness		Anger		Sadness		Anger	
		M	SD	M	SD	M	SD	M	SD
4 years	Valence	.55	.51	.68	.48	.59	.50	.64	.49
	Primary	.05	.21	.18	.40	.14	.35	.14	.35
	Secondary	.05	.21	.00	.00	.09	.29	.05	.21
5 years	Valence	.36	.49	.52	.51	.52	.51	.58	.50
	Primary	.33	.48	.33	.48	.18	.39	.27	.45
	Secondary	.03	.17	.00	.00	.12	.33	.06	.24
6 years	Valence	.36	.49	.48	.51	.36	.49	.45	.51
	Primary	.24	.44	.30	.47	.27	.45	.30	.47
	Secondary	.24	.44	.03	.17	.30	.47	.09	.29

&lt;Table 4&gt; Results of ANOVA for secondary emotional rea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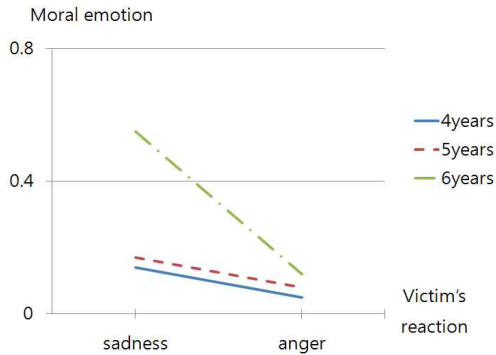
Variables	SS	df	MS	F
[Between-subjects]				
Age	1.13	2	.56	3.98*
Error	12.03	85	.14	b<c
[Within-subjects]				
Intention	.31	1	.31	5.41*
Intention X age	.01	2	.01	.11
Error(intention)	4.89	85	.06	
Reaction	.87	1	.87	11.06**
Reaction X age	.57	2	.29	3.66*
Error(reaction)	6.65	85	.08	
Intention X reaction	.00	1	.00	.06
Intention X reaction X age	.01	2	.00	.06
Error(intention X reaction)	3.24	85	.04	

을 보인 경우에( $F(1, 85) = 11.06, p < .01$ ) 이차 정서 반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들은, 가해자에게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가 슬퍼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가해자가 죄책감 같은 도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낄 것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반응과 연령 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 $F(2, 85) = 3.66, p < .05$ )가 있었다

(Figure 2). 단순 주효과 분석을 위해, 각 연령별로 피해자가 슬픔을 보이는 조건과 화남을 보이는 조건 간에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6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 = 3.24, df = 32, p < .01$ ). 즉, 6세 유아들은 피해자가 화를 내는 상황보다, 슬픈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도덕적 정서를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Interaction effects between age and victims' reaction

#### IV. 논 의

본 연구는 유아기에 도덕적 정서 이해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알아보고 또한 가해자의 의도와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도덕적 정서 이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 결과, 도덕적 정서가 학령기인 7, 8세 이후에 분화된다는 주장과는 달리, 소수 이긴 하지만, 4~6세의 유아들도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후회나 미안함 등 죄책감과 관련된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물론 다수의 유아들은 가해자의 정서를 ‘좋다/나쁘다’의 수준에서 이해하거나 도덕적 정서 대신 ‘슬픔’과 같은 일차 정서로 이해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일차 정서의 이해는 유아의 언어가 빠르게 발달하는 3, 4세부터 증가하여 5, 6세가 되면 성인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nham, Mitchell-Copehand, Syanderg, Auerbach, & Blair, 1997; Dunn, Brown, & Beardsall, 1991). 이처럼 유아기는 일차 정서의 이해가 현저히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일차 정서 반응이 이차 정서 반응보다 많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며 대부분의 유아가 가해자의 정서를 속성이나 일차 정서 수준에서 이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함이나 후회는 슬픔과 분명히 구별되는 정서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유아기에 도덕적 정서가 분화한다는 증거가 된다. 즉, 도덕적 정서가 훨씬 더 어린 연령에서 발달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아들의 전체적인 이해 유형을 살펴보면, 오반응에서부터 이차 정서 반응까지 다양한 수준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정서의 속성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일차 정서를 이해하고, 일차 정서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차 정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정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 사실, 당황, 수치심, 질투와 같은 이차 정서를 포함한 모든 정서 표현은 영아기에 이미 나타난다(Kagan, 1981). 따라서 영아기 이후 일차 정서 뿐 아니라 이차 정서에 대한 이해도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단지, 도덕적 정서의 경험은 인과적 규칙의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에 상대적 입장에서의 조망 수용이 가능한 학령기에 더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 같다.

한편, 도덕적 정서 반응은 4, 5세에 비해 6세에 현저히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5, 6세 유아들이 죄책감과 슬픔이 유발되는 상황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는 Berti 등(200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유아들은 5, 6세가 되면 정서의 양가적 속성과 내면화된 정서 규칙의 이해가 가능해 진다(Denham, 1998). 도덕적 정서는 주로 나의 욕구와 사회적 규칙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며, 쾌락과 절제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처럼 정서의 다양한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6세 유아는 도덕적 정서도 더 잘 이해하였을 것이다.

둘째로, 유아들은, 의도적인 가해자보다 실수로 타인에게 해를 입힌 가해자가 도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차이가 있었는데, 학령기 아동들은 의도적으로 해를 입힌 상황에서 죄책감을 더 많이 느낄 것으로 생각하였다(Tangney, 1992). 유아들은 도덕적 정서 이해는 가해자라는 인물의 특성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의도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가해자는 실수를 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유아들은 착한 사람/나쁜 사람의 차원에서 도덕 판단을 한다(Kohlberg, 1969; Selman, 1971). 이런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실수를 한 가해자가 악의적인 가해자보다 덜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도덕적 정서를 더 잘 느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학령 아동기에는 도덕적 정서가 더 구체적으로 분화되기 때문에 의도적인 가해 상황에서는 죄책감을, 실수에 대해서는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한다(Menesini et al., 2008). 이러한 점이 유아들과의 차이를 만들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유아들은 피해자가 슬픔을 보일 때 도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할 것이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고통 정도에 따라 정서 귀인에 차이가 있다는 Olthof(200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 5세는 피해자의 반응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고 6세 유아에서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어린 아동들보다 정서조망수용이 더 뛰어난 6세가 도덕적 정서이해에서도 피해자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본 연구에서 유아들이 의도적인 가해자도 피해자가 화를 내는 상황에서는 도덕적 정서를 느끼지 않고 도리어 가해자의 기분이 나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이

러한 결과는 어린 유아들이 가해자가 기쁠 것이라고 응답하였던 선행 연구들(Choi, & Yu, 2000; park, 2001)과는 달리,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가해자의 정서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가해 행위는 비난이나 벌을 받아야 하지만 피해자가 이에 화를 내며 대응할 때 가해자가 더 화를 내고 둘 간의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해자가 잘못을 느끼고 사과를 하려는데 피해자가 화를 내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공격적 성향을 가진 아동일수록 다른 사람의 실수나 별 의도 없이 보이는 행동에도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편향이 있으며(Dodge & Frame, 1992; Perry et al., 1986),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들도 정서 귀인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urgess, Wojslawowicz, Rubin, Rose-Krasnor, & Booth-LaForce, 2006). 결론적으로, 피해자 역시 가해자의 정서와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응할 때 조화로운 대인관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에도 도덕적 정서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증거와 발달적 차이를 제시하였으며 가해자의 의도와 피해자의 정서적 반응이 도덕적 정서 이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밝히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결과들은 유아들의 도덕적 정서 발달 증진을 돕고 공격성 문제의 해결 방안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점은 후속 연구에서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이해하기 쉬운 외현적 가해 행동만을 고려하였으나, 사회적 규칙이나 도덕 기준의 위반과 같이 가해 상황에 따라 유아들의 도덕 판단과 정서 반응은 다를 수 있다(Kim, 1993; Park, 2001). 따라서 후속 연구는 가해 행동이 일어나는 이야기 속 상황을 더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친

구에게 외현적 공격을 가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상황 등 행위의 결과와 대상자가 다른 상황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도덕적 정서는 크게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구분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발달적 특성상 도덕적 정서를 하위 영역별로 다루지 않았다. 연구 결과, 유아들에게서는 미안함이나 후회 같이 죄책감과 관련된 정서 이해가 주로 나타났지만 수치심에 대한 이해가 유아기 동안 어떻게 발달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도덕적 정서 이해 발달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발달적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학령기 아동까지 포함하여 더 다양한 연령에서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Arsenio, W. F., & Ford, M. F. (1985). The role of affective information in social-cognitive development; children's differentiation of moral and conventional events. *Merrill-Palmer Quarterly*, 31(1), 1-18.
- Arsenio, W. F., & Kramer, R. (1992). Victimization and their victims : children's conception of the mixed emotional consequences of moral transgressions. *Child Development*, 63, 915-927.
- Barrett, K. C., Zahn-Waxler, C., & Cole, P. M. (1993). Avoiders vs. amenders : implications for the investigation of guilt and shame during toddlerhood. *Cognition and Emotion*, 7, 481-505.
- Bear, G. G., Uribe-Zarain, X., Manning, M. A., & Shiomi, K. (2009). Shame, guilty, blaming and anger : differences between children in Japan and the US. *Motivation and Emotion*, 33, 229-238.
- Berti, A. E., Carattoni, C., & Venturini, B. (2000). The understanding of sadness, guilt, and same in 5-, 7-, and 9-year-old children.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26(3), 293-318.
- Burgess, K. B., Wojslawowicz, J., Rubin, K. H., Rose-Krasnor, L., & Booth-LaForce, C. (2006).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coping strategies of shy/withdrawn and aggressive children : does friendship matter? *Child Development*, 77(2), 371-383.
- Bussey, K. (1992). Lying and truthfulness : children's definitions, standards, and evaluative reactions. *Child Development*, 63, 129-137.
- Choi, B., & Yu, Y. (2000). Children's affective reactions in character's role on event of socialmoral transgress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Development*, 13(3), 61-75.
- Denham, S. (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Y : The Guilford Press.
- Denham, S. A., Mitchell-Copeland, J., Standberg, K., Auerbach, S., & Blair, K. (1997).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emotional competence : Direct and indirect effects. *Motivation and Emotion*, 21, 65-86.
- Dodge, K. A., & Frame, C. L. (1982). Social cognitive biases and deficits in aggressive boys. *Child Development*, 53, 620-635.
- Dunn, J., Brown, J., & Bea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48-455.
- Ferguson, T. J., Stegge, H., & Damhuis, I. (1991). Children's understanding of guilt and shame. *Child Development*, 62, 827-839.
- Harris, P. (1989). *Children and emotion : the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understanding*. Oxford : Blackwell.
- Kagan, J. (1981). *The second year : the emergence of self-awareness*.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Kim, S. M. (1993).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effect of emotion on moral transgression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4(2), 95-114.
- Kochanska, G., DeVet, K., Goldman, M., Murray, K., & Putman, S. P. (1994). Maternal reports of conscience development and temperament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5, 852-868.
- Luby, J. Belden, A., Sullivan, J., Hayen, R., McCadney, A., & Spitznagel, Ed. (2009). Shame and guilt in preschool depression : evidence for elevations in self-conscious emotions in depression s early as age 3.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9), 1156-1166.
- Menesini, E., & Camodeca, M. (2008). Shame and guilt as behaviours regulators : relationships with bullying, victimization and prosocial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6, 183-196.
- Nelson, S. A. (1980). Factors influencing young children's use of motives and outcomes as moral criteria. *Child Development*, 51, 823-829.
- Nunner-Winkler, G., & Sodian, B. (1988).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 emotions. *Child Development*, 59, 1323-1338.
- Olthof, T., Schouten, A., Kuiper, H., Stegge, H., & Jennekens-Schinkel, A. (2000). Shame and guilt in children : differential situational antecedents and experiential correlate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8, 51-64.
- Park, H. S. (2001). A study of emotional response on children's sociomoral rule system. *영유아교육연구*, 4, 109-126.
- Perry, D. G., Perry, L. C., & Rasmussen, P. (1986). Cognitive social learning mediator of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7, 700-711.
- Ryu, K. & Min, K. (2002). The development of moral emotions : shame and guilt. *Psychological Science(Korean)*, 11(1), 53-69.
- Tangney, J. P. (1992). Situational determinants of shame and guilt in young childhoo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199-206.

2011년 10월 31일 투고, 2012년 1월 13일 수정  
2012년 3월 25일 채택